

말 많은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타보니

해설사 없이 9시간 파김치 여행

45인승 투어 버스에 관광객 고작 4명뿐 참가자들 "너무 힘들어 다신 타지 않을래요"

토요일인 19일 오전 8시35분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유-스케이)에서 담양·장성으로 출발하는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에 몸을 실었다.

전남도가 지난달 2일 '금호산업(주)와 함께 도내 주요 관광지 12개 노선에 운행하도록 한 12대 가운데 '소쇄원·백양사'코스를 뛰는 순환 버스가였다.

45인승 버스는 이윽고 5월의 신록이 아름다운 남도의 들녘을 힘차게 달렸다. 버스는 깔끔했고, 기사도 친절했다. 하지만, 승객은 기사를 빼면 고작 4명. 농어촌 버스만 해도 확자지결한 흥겨움이 있는데, 설렘을 나타내는 관광버스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국립 5·18 민주묘지'가 있는 망월동을 지나칠 때쯤 뒤쪽에서 묻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5·18 묘지 앞을 지나왔어요?"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주부 한모(56)씨였다. '5·18민주항쟁 27주년'인데 이를 안내하고 설명해줄 사람은 버스 안에 아

무도 없었다.

오전 9시10분, 출발한 지 30여분 만에 첫 코스인 소쇄원에 도착했다. "소쇄원입니다. 이곳의 관광시간은 오전 9시30분까지입니다."

짧은 안내방송이 있던 뒤 관광객들은 안내관에 몰려가서 필요한 정보를 읽은 뒤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갔다. 전남도 홈페이지엔 '순환버스 승객에게 관광료를 할인해준다'고 했지만, 관광료 1천원을 모두 받는 것에 항의할 시간도 없었다. 관광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아서 서둘러 보지 않으면 되돌아갈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어느 관광지에 서나 보이는 관광안내인 1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일은 대나무박물관, 즉옥원 등에서도 계속됐다.

서울에서 온 조찬호(여·32·학원강사)씨 자매는 "박물관에 불거리가 많아 좋았지만 전시품에 대한 설명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물관에서 메타세쿼이아 거리, 추월산을 숨겨쁘게 달려온 버스는



지난 19일 오전 담양 식영정에 들른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전체 승객 4명 중 2명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서둘러 버스에 오르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점심때가 다 돼서 담양을 즉옥원에 도착했다. 이곳 주차장에서 마주친 관광 버스는 많은 승객을 쏟아내 4명의 승객만을 태운 텅 빈 순환 관광버스와 대조됐다.

대수 5만여 평을 둘러보고 점심까지 해결해야 하는 이곳의 관광시간은 1시간 30분. 맛집이 나와있는 안내장을 받지 못한 승객들은 식당을 고르는데만 수십 분을 허비해야 했다.

마지막 코스인 장성군 황룡면의 필암서원에 도착한 조씨 자매는 버스에 내리지 않았다. 뻘뻘한 일정

과 비슷한 코스가 마지막 여행을 포기하게 한 것이다.

여행을 마치고 광천동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출발 9시간만인 오후 5시30분.

버스에서 내린 조채연(여·29·간호사)씨는 "친척 집에 내려온 길에 전남도 관광순환버스를 타했는데 다시 타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관광안내인이나 체험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버스만 운행하면 관광객들이 온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지난 19일 동구청 앞마당에서 열린 '한 가족처럼 모시는 독거 어르신 1촌 결연행사'. 대학생과 독거노인들이 서로 안아 주고 있다. /위성리기자 jrwi@kwangju.co.kr

독거노인 300명 손자·손녀 생겼다

대학생 300명과 '1촌 결연'... 말 벗·외출 동행

할머니는 난생처음 보는 '손녀'의 재롱에 눈물을 글썽였고, 청년은 낯선 할아버지에게서 몇 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정을 되살렸다.

동구청이 지난 19일 오후 3시 구청 앞마당에 마련한 '한 가족처럼 모시는 독거 어르신 1촌 결연행사'가, 사물놀이와 태권도 시범 등 간단한 여흥이 끝나자 대학생 300명과 홀로 사는 할머니·할아버지 300명이 마주 앉았다. 학생들은 광주 시내 16개 대학 생 선교회(C.C.C) 소속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벗이 돼 주거나 ▲외출 함께 해주기 ▲생일상 차려 주기 ▲목욕 도와주기 등을 하겠다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어색한 순간도 잠시 대학생들이 대나무 베개를 하나씩 선물하자, 정에 굽주린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반색했다.

"아이고 메~ 이렇게 이쁘다. 그냥 오늘 와 준것 만으로도 고마워" 평생을 혼자 살아온 박양심(75·광주시 동구 지산동) 할머니는 "이제 외로움

을 달래게 됐다"며 손수건을 꺼낸다.

최은영(여·20·조선대 1년)씨는 "이틀에 한번은 전화 통화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와서 말 동무가 돼 드리겠다"라며 두 손을 꼭 잡았다.

김장호(20·광주대 1년)씨는 "물어 가진 할아버지가 생각났다"며 "시간 나는 대로 말벗도 돼드리고, 목욕탕에도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

동구청 경료조원인 박영숙(여·39)씨는 "앞으로 1천여 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더 모집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촌 결연을 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9급 공무원 채용 영어시험 "학원 교재 문제와 유사"

일부 수험생 의혹 제기

광주시의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영어 문제 일부가 학원교재를 베껴서 출제됐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20일 인터넷 공무원 시험준비 카페 등에 "지난 12일 치러진 광주시 9급 지방공무원시험의 영어과목 20문제 가운데 5문제가 광주 모 학원 교재를 베껴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광주시내 모 공무원시험 학원이 수험생들을 시켜 시험 문제를 베껴오도록 한 후, 자기 학원교재가 5개 영어시험 문제를 적중시켰다고 인터넷에 과대광고했

다"며 "확인결과 이들 문제는 일부 유사하나 완전일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앞으로 유사출제가 없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확인측도 "학원 간에 경쟁이 심해 시험이 끝나자마자 유사출제된 문제를 복원·공개하다 보니 유출 의혹을 받게 된 것"이라며 "문제의 교제는 저자가 기존 토플문제를 토대로 집필한 것으로 '100% 적중'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대학 교수 3명에게 20문제씩 총 60문제, 다른 기출문제 등을 받아 또 다른 교수에게 이 가운데 20문제를 선별·출제토록 했다. 이번 시험에는 58명 모집에 6천509명이 응시했다.

/김정주기자 jjnws@

초·중·고 급식 납품 수의계약 없앤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1천200명 이상 초등학교와 1천 명 이상 중·고등학교의 급식 납품업체 선정용 기존 수의계약에서 최저가 제한 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6~7월 학교운영위원회가 수의계약을 통해 급식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바꿔 대규모 초·중·고등학교는 최저가 제한 입찰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급식 식재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최저가를 제한해 공개경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1차로 4개 업체를 선정할 뒤 이들 업체를 상대로 최저가 제한 입찰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황태준기자 hwangtae@kwangju.co.kr

■ '버스타어' 문제점 원가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가 운행 두 달도 못돼 1회 평균 탑승객이 3명에도 미치지 못해 '퇴출 위기'를 맞았다.

전남도가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전남 관광을 하도록 하고, 주민 소득도 높여주기 위해 '금호산업(주)'으로 하여금 이 버스를 운행하도록 한 것은 지난 달 2일.

하지만 지금까지 평균 8회·주말 12회 등 7주 동안 450여 차례 버스가 운행됐으나 이용객은 1천200여 명에 그쳤다. 1회 평균 탑승객은 고작 2.7명이었다.

주말인 지난 19일 소쇄원·백양

마땅한 체험 프로그램 없고 홍보도 안돼 평균 2.7명 이용...하루 5~8곳 일정 빠듯

사 코스(144km)를 달린 순환 버스의 경우 기름값 14만 원·인건비 3만 원 등 17만 원의 운행비가 들었지만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요금 3만5천200원이 전부였다. 이날 광천터미널에서 7개 코스로 출발한 순환 버스가 쓴 운영비는 190여 만 원인데 반해, 승객 48명의 요금은 40여 만 원에 불과했다.

운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이템 미비'와 '홍보 부족'이 크다고 관광

객들은 지적한다. 하루에 5~8곳에 이르는 경우지를 약 30분 간격으로 구경해야하는 승객들은 쉽게 지쳐, 일부는 관광일정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입장료·특산물·토속음식에 대한 할인혜택과 마땅한 체험 아이템도 원인데 반해, 승객 48명의 요금은 40여 만 원에 불과했다.

고속철도(KTX) 및 공항과의 환승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터미널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1만2천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관광지 순환버스에 대한 인터넷 홍보가 '남도 코리아', '전라남도', '금호고속' 홈페이지 등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단순 안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엔 손님이 없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희승(호남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직접 타 봤더니 문화해설사도 없고, 체험 프로그램도 그럴듯한 것이 없었다"며 "버스만 돌린다고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공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필름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막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칼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인산이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 (062)262-0101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연동 1372 신성빌딩 1층
등록번호 616-81-11280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주세요!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뜨아아~ 목포출발, 녹동(포항)출발

제주도 여행 2월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를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재예술향,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애보세요~

목포 출발 "목카투어" 78,000원

- 1일차: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시 30분 또는 15시)출발-홍월1박
- 2일차: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등반 -홍월1박
- 3일차: 제주관광-제주항 (17:30)출발 (단, 일요일은 16:30출발)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78,000원

- 1일차: 녹동 남해고속터미널(10시)출발 -홍월1박
- 2일차: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 -홍월1박
- 3일차: 제주관광-제주항 (18:00)출발

광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주중+주중) 179,000원(주중+주말)

★ 렌트카 파격할인 ★
전차종 75% 할인
※이벤트 24시간 22,700원(네비게이션 포함)

1박2일 항공 골프투어 389,000원
일·화·수 출발기준 (광주출발: 광주 오전 출발, 제주 오후 출발)
*포항내역: 광복항공, 광명호텔(박), 조식(회, 그린(2회)(36회), 서해(4명) 2명

2박3일 항공 골프투어 419,000원
일·화·수 출발기준 (광주출발: 광주시간 선택 가능)
*포항내역: 광복항공, 광명호텔(박), 조식(회, 그린(2회)(36회), 서해(4명) 2명

오전기념: 해저탐험 잠수관람을 원할시 49,500원 → 30,000원 (단, 미리 사전예약에 한합니다. 당일 예약시 정상품적 적용)

조흥은행 708-01-074067 제주무궁화관광

문의: ☎064-744-1109 www.jejumt.net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씨월드고속해리

지리산한약방 (국내산한약재료사용)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www.jir.wo.to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이세이극장, 광주은행, 북부지정, 양동시장, 지리산한약방